

금속노조 쟁의권 확보, 임단투 · 구조조정 투쟁 본격화

중노위, 10일 조정종료 결정 ... 쟁의행위 찬반투표 84.2% 가결



금속노조가 쟁의행위 찬반 투표 찬성 가결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종료에 따라 쟁의권을 확보했다. 노조는 2020년 임금·단체협약 쟁취와 구조조정 저지 투쟁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중앙노동위원회(아래 중노위)는 7월 10일 금속노조가 7월 3일 신청한 쟁의 조정 결정에 대해 조정종료(조정중지)를 결정했다.

중노위는 “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사이의

의견조율이 더는 어렵고, 금속 노사 사이의 쟁점 사항에 대해 견해차가 커 조정안 제시가 어렵다고 판단해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종료하기로 했다” 라고 밝혔다.

노조는 6월 29일 52차 임시대의원대회 결정에 따라 7월 6일부터 8일까지 ‘중앙교섭과 지부 집단교섭, 사업장 보충 교섭·대각선 교섭’에 대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벌였다. 투표결과 투표자 대비 84.2% 조합원이 쟁의행위에

찬성했다.

노조는 52차 임대에서 ‘모든 해고 금지, 사회 안전망 전면 확대와 구조조정 저지, 위기 대응 협약 쟁취’를 내걸고, 모든 해고 금지를 위해 자본과 전면전을 벌인다고 선포했다. 노조는 이를 위해 7월 중 쟁의권을 확보하고, ‘구조조정, 노동법 개악 저지, 위기 대응 협약 쟁취’를 위한 9월, 18만 공동파업과 총력 투쟁을 벌이기로 결정했다.

“두산모트롤 해외매각 국가가 막아라”

두산 자본 경영실패 계열사 노동자에 전가 ... “중국에 넘기면 기술 유출·고용불안 뻔해”



두산그룹 계열사 두산모트롤 매각이 사실화한 가운데 금속노조 경남지부 두산모트롤지회가 두산의 일방 매각과 외국 자본의 인수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지회는 해외 매각 저지를 위해 상경투쟁을 벌인다.

금속노조 두산모트롤지회는 7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두산 재벌의 경영실패가 모기업과 두산중공업의 위기를 불러왔고, 위기 극복 능력이 없는 두산 재벌은 결국 계열사 매각으로 불을 끄려하고 있다” 라고 성토했다.

두산모트롤은 국내 1위 유압기 생산 공장이다. 굴삭기용 주행모터는 산업통상자원부 선정 세계 일류 상품이다. 그야말로 기술력이 높은 회사다. 두산 자본은 이런 알짜 공장을 중국의 건설장비 업체인

서공그룹(XCMG)에 넘기려고 한다.

두산모트롤지회는 “상하이 자동차가 기술을 뺏아낸 뒤 쌍용자동차를 버렸다. 중국에 넘어가면 모트롤BG의 미래도 불을 보듯 뻔하다” 라면서 “매각, 이전하면 국내 제조공장은 껍데기만 남을 것이다” 라고 지적했다.

지회는 “과거 대우그룹의 해체 뒤 해외자본이 인수한 제조업 계열사는 모두 만신창이가 됐다. 이제 국가가 외국 자본의 제조업 인수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지회는 “창원의 우량기업 동명모트롤을 먹은 두산 자본은 단협 해지, 노조 탈퇴 공작, 부당노동행위, 교섭 거부 등 끔찍한 노동탄압을 저질렀다” 라며 “12년 동안 현장의 노동자를 괴롭힌 두산이 경영

실패를 다시 매각이라는 방식으로 노동자에게 떠넘기려 한다” 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승렬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두산그룹의 위기는 박 씨 형제가 돌아가면서 경영하는 전 근대 경영구조와 경영진의 무능과 경영실패가 원인이다. 두산 자본은 위기의 책임을 계열사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 라고 밝혔다.

류호정 정의당 국회의원은 “두산이 수천억 원이 넘는 돈 회수에 혈안이 되어 피땀 흘려 고생한 노동자의 생존권은 외면하고 ‘셀프 먹튀’ 를 시도하고 있다” 라며 “두산 자본만 배불리는 일방 해외 매각은 중단해야 한다. 외국 자본에 한국 핵심기술을 유출할 수 없다” 라고 강조했다.

“금속 깃발 들고 아사히공장에 당당히 들어가겠다”

10일, 아사히비정규직 투쟁 5주년 금속노조 결의대회 ... 노조, “현장 복귀 더 늦지 않게 힘 모을 것”

“노동조합 깃발 들고 현장으로 돌아가자.” “불법 파견 아사히글라스 지금 당장 직접 고용하라.”

금속노조가 7월 10일 오후 경북 구미 에이씨씨화인 테크노한국(옛 아사히초자화인테크노한국·아래 아사히글라스) 공장 앞에서



‘비정규직 철폐, 불법파견 박살, 아사히 투쟁 5주년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열었다. 대회 참가자 노동자들은 한목소리로 아사히글라스 사측의 부당해고와 불법 파견 범죄를 규탄했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아사히글라스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쫓겨난 지 5년이다”라며, “진즉 현장으로 돌아가야 했는데 많이 늦었다”라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노조 구미지부 아사히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은 아사히글라스 사내 하청업체에서 일하다 2015년 6월 30일 문자로 해고를 통보받았다.

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아사히글라스 노동자들이 구미공단 아스팔트에 킁한 꽃씨가 아사히글라스 공장 안으로 날아가 들꽃으로 활짝 피어야 할 때”라며 “6년 차에 들어선 아사히 투쟁 햇수가 더 늘어나지 않도록 금속노조가 제대로 힘을 모으겠다”라고 약속했다.

지회에 따르면 2015년 해고 당시 아사히글라스에 세 개 사내하청업

체가 있었다. 이 가운데 지티에스 노동자들이 2015년 5월 29일 노조를 결성했다. 원청은 6월 지티에스와 도급계약을 해지했다. 지티에스에서 일하던 사내하청 노동자 178명은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다. 도급계약은 그해 12월 20일까지였다.

원청은 계약이 6개월여 남은 상황에서 갑작스레 지티에스와 계약을 끊었다. 노동조합이 생긴 지 한 달 만에 이뤄진 일들이다. 지회는 “노조파괴 목적으로 하청업체 계약을 해지했고,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설명한다.

차현호 지회장은 “유리 만드는 공장이라 특수장갑을 끼야 한다. 유리생산으로 세계에서 손꼽히는 아사히글라스가 안전장비인 장갑조차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차별 지급했다”라며 “정규직이 쓰고 버린 장갑을 쓰레기통에서 주워 쓰다 이 건 정말 아니다 싶어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라고 토로했다.

차현호 지회장은 “이 싸움을 조합원들과 즐겁게 돌파하고 있다”

라며 “지회는 민주노조 정신으로 습하고 녹록한 농성장 천막 지키며 지금까지 왔다”라고 투쟁 5년의 회한을 털어냈다. 차 지회장은 “갈 길이 멀다. 이제 불법 파견 1심 승소했을 뿐”이라며 “노동조합 없는 아사히글라스 공장 안으로 금속노조 깃발 들고 당당히 걸어 들어가겠다”라고 결의했다.

지회는 현재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불법 파견 등을 두고 법률다툼을 진행하고 있다. 부당노동행위는 대법원에, 불법 파견 건은 고등법원에 계류 중이다. 지회의 ‘노조파괴를 위한 업체 계약해지’ 주장을 1, 2심 법원은 증거불충분이라 판단했다. 불법 파견(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은 지난해 8월 1심 법원인 대구지법 김천지원이 지회 손을 들어줬다.

이날 결의대회에 노조 비정규직 사업장과 경주·구미·포항지부 확대 간부들이 참석해 아사히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과 함께했다. 최재소 노조 경주지부장은 “같은 금속노조이자 경북지역 동지로서 아사히 노동자들 아픔을 견어내는 투쟁에 끝까지 같이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황우찬 노조 포항지부장은 “오늘 여기 모인 사람들의 분노를 모아 금속노조 전체 투쟁으로 만들어 나가자”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최저임금 내리면 국밥값도 내리나?”

최저임금위 사측 대표, 삭감 계속 요구 ... 노조, “시장 작동 불능 상태, 최임 인상 더욱 절실”



최저임금 노동자의 최고생계비인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사용자 측이 삭감안을 들이대고 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1만 원을 받아도 먹고살기 부족한 현실이라며, 민주노총의 요구는 노동자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라고 맞섰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 6차 전원 회의가 열린 7월 9일 충남 세종시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먹고 살자. 최저임금 투쟁 승리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열었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는 결국,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제 민주노총이 저임금 노동자를 지킨다는 약속을 이행하겠다”라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6차 전원 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갔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2021년 최저임금 1차 수정안으로 올해 최저시급 8천 590원에서 9.8% 인상한 9천

430원을 제시했다. 반면 사용자 측은 1.0% 삭감한 8천 500원을 들이댔다. 두 노총 노동자 위원들은 사측 삭감안에 강력하게 반발하며 최저임금 회의장을 박차고 나왔다.

정주교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결의대회 투쟁사에서 “생사가 불분명한 이견희 삼성그룹 회장이 2019년 기준 배당금 4천 7백억 원을 시급으로 계산하면 1억 9천만 원이 넘는다. 노동자는 최저시급 8,590원으로 가족 세 명이 먹고 산다”라고 꼬집었다.

“이견희 배당금은 시급 1억 9천만 원”

정주교 부위원장은 “자본이 계산한 1인 가구 생계비가 월 224만 원이다. 노동자가 요구하는 최저임금 1만 원, 월 209만 원이 무리한 요구인가”라고 되물으며 “투쟁으로 최저임금 1만 원 쟁취하자”라

고 호소했다.

이성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동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분은 자본이 부담해야 할 몫이라고 주장했다. 이성일 위원장은 “대기업이 미리 자신의 이윤을 떼어놓고 임금을 결정하는 구조에서 최저임금 인상분은 하청업체와 영세 상인이 아닌 대기업이 부담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전병덕 서비스연맹 대전세종충청본부장은 “최저임금을 삭감하면 국밥값도 내리는가? 가족이 모여 한 달에 세 번 식사할 수 있는 돈 30만 원 올려달라는 게 그렇게 무리한 요구냐”라며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결의대회를 마무리하며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 19 위기를 불평등 완화의 기회로 삼겠다고 했다. 한국 사회의 고질인 불평등 해소는 최저임금 인상에서 시작한다”라고 강조했다.

금속노조는 사용자 측의 최저임금 삭감 주장에 대해 7월 10일 발표한 논평을 통해 “자본 측 대표자들이 밝혔듯이 지금은 시장이 정상 작동하지 않는 위기다. 이럴 때 시장 논리, 경제 논리를 들고나오는 행태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고 꼬집었다. 노조는 “시장이 정상 작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같은 보호 장치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